

생이 불가피한 예에서의 재건은 종양적출후 즉시 시행하는 신경이식술이 선호되고 있으나 술후 방사선치료가 이식된 신경의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.

**목 적:** 이하선 악성종양의 수술 중 종양이 안면신경을 침윤하여 안면신경을 희생하고 신경이식술을 시행하였던 예들에서 안면신경의 기능회복의 결과를 검토하고 술후 방사선치료가 신경이식술 후 기능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고자하는데 있다.

**대상 및 방법:** 이하선의 악성종양으로 이하선전적출을 시행 중 종양의 침범으로 안면신경을 희생후 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12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였던 6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병리조직학적 진단은 선양낭성암종이 3례, 점액상피암종이 2례, 선암종이 1례였다. 희생된 안면신경은 체간만 희생하였던 예 및 체간과 말초분지를 포함하여 희생하였던 예가 각각 2례, 하부 3개의 말초분지가 희생하였던 예 및 연변하악분지(marginal mandibular branch)를 희생하였던 예가 각각 1례였다. 술후 방사선 치료는 4례에서 시행되었으며 신경이식술이 시행된 원발부위에 6000cGy에서 6600c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.

**결 과:** 안면신경의 기능회복은 우수한 예가 2례, 양호한 예가 3례, 불량한 예가 1례였다. 술후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4례는 불량한 예가 1례, 양호한 예가 2례, 우수한 예가 1례였다.

**결 론:** 이상의 결과로 이하선 악성종양의 수술에서 안면신경의 희생시 신경이식술은 술후 방사선치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선택 시행하여야 할 술식으로 생각된다.

13

### 설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 
김민식 · 선동일 · 김수환 · 조승호 · 서병도

1988년 4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설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한 29명을 대상으로 후향조사하였다. 성별은 남

자 22명(75.8%), 여자 7명(24.1%)였으며 평균연령은 57.1세였고 추적기간은 추적중 소실된 2명을 제외하고 평균 23.1개월이었다. 병기별로는 T1 6명(20.7%), T2 16명(55.1%), T3 5명(17.2%), T4 2명(6.9%)이었고 병리학적으로는 편평상피암이 28명(96.5%), 선양낭포암이 1명이었으며 부위별로는 설측부가 25명(86.2%), 설근부가 4명(13.7%)이었다. 수술은 절부분절체가 26명(89.6%), 설전절체가 3명(10.3%)이었고 재건은 단순 봉합 12명(41.3%), 피부이식 3명(10.3%), 대흉근 근피판술 5명(17.0%), 요골측 전완 유리피판술 6명(20.7%), 장골유리피판술, 복근근 유리피판술, 외대퇴 유리피판술이 각각 1명씩이었다. 경부곽칭술은 18명(62.0%)에서 24례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예방적곽칭술은 9례에서 실시하였는데 1례에서 경부임파절전이기가 있었고, 치료적곽칭술은 15례에서 실시하였는데 이중 11례(73.3%)에서 경부임파절전이기가 있었고 병기별로는 T1 0명, T2 5명(31.3%), T3 2명(40.0%), T4 1명(50.0%)에서 재발하였다. 추적기간중 9명(33.3%)이 사망하였는데 재발로 사망한 경우가 5명(18.5%)이었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.

14

### Lateral Trapezius Island Flap을 이용한 두경부 재건술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,  
이비인후과학교실\*

정 재 호 · 서 장 수

두경부의 재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하여 애로사항이 많아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. 비교적 최근예야 비로소 유리피판술의 발달로 두경부 종양의 절제술 후에 초래되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결손부의 효과적인 재건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. 그러나, 유리피판술은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술시간이 길고, 혈관폐색으로 피판의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. 그래서 가능하면 국소의 skin flap이나 musculocutaneous flap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. 불행하게도, 두경부는